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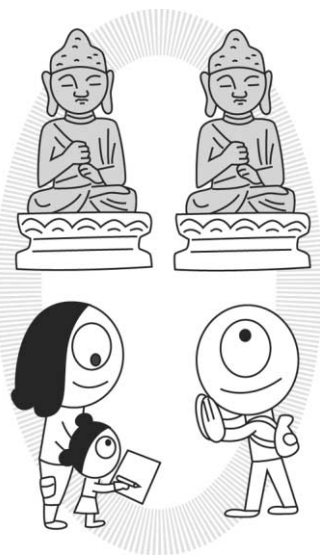
사랑의 만남 '비로자나데이' 연다

해인사, 칠석 맞아 7월 29일 공연 탐돌이 등 행사 다채

합천 해인사주지 현승가 칠석(7월 31일)을 맞아 7월 29일 한바탕 신명나는 축제 '비로자나데이(VIROJANA DAY)'를 개최한다. 이 축제는 현존 최고(最古)의 목불로 확인된 해인사 쌍둥이 비로자나불의 존재를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비로자나는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태양' '광명' 등을 의미한다.

"지난해 해인사에서 발견된 쌍둥이 목조 비로자나불(883년)에서 착안해 사랑·탄남·생명을 주제로 비로자나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힌 해인사 주지 현승 스님은 "쌍둥이 비로자나불은 여름에 제작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통일신라 진성여왕과 정체가이자 문화가였던 김위홍과의 사랑이야기가 깃들여 있어 '사랑과 만남'의 날인 칠월칠석에 축제를 열기로 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비로자나데이는 오후 3시 국립공원 가야산 해인사 일원에서 밤 늦게까지 계속되며, 경내와 암자 곳곳에서 소규모 콘서트와 각



중 공연이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젊은 국악그룹 '이스터녹스'의 역동적인 퓨전 국악공연, 4인조 그룹 '비즐리'의 월드뮤직 콘서트, 멕시코

악단 '마리아치 라틴'의 민속음악 공연, 줄곧 권원태와 어릿광대 등의 재담과 외출타기, 야간 탐돌이에 사용된 '종이컵 연등' 만들기, 마임과 판소리 등 각종 퍼포먼스, 진성여왕과 김위홍 그리고 칠석에 관련된 시화전, 사찰음식 맛보기 등 다양하게 펼쳐진다.

또 오후 7시부터 패션디자이너 이영희의 '사랑과 만남의 패션쇼', 가수 김중국의 '한여름밤의 꿈'과 국악인 김성녀의 '천년의 사랑' 공연, 연극 형식으로 진행되는 '사랑의 잉태와 완성', 사랑의 탐돌이 등이 밤 10시까지 계속된다.

현승 스님은 "비로자나데이는 산사에서 열리는 젊은 국민적 축제로 진행될 예정으로 많은 이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해인사는 당일 밤 늦게까지 대구까지 임시 버스를 운행하며, 문화재 관람료, 국립공원 입장료, 주차료 등을 면제한다. (055)934-3000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교류 활발하면 조직력도 살아나요”

대불어 대구지부, 어린이포교 활성화 위한 특강



강좌 및 지도방안 논의

7월 9일, 대구 반월당 보현사 문화관이 시끌벅적하다.

(사)동원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대구지구(지구장 선용, 이하 대불어대구지구)가 부산에서 어린이지도교사로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기획이벤트 '공몽' 김경영 대표를 초청해 레크리에이션 특강을 열었다(사진).

비가 오는데도 산용 스님과 20여명의 대구지역 어린이지도교사들이 모여 빠른 어린이, 빠른 교사의 역할을 바꿔가며 수건돌리기도 하고 수박할기 게임도 하면서 어린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을 배

웠다. 웃고 떠드는 가운데 흘러나오는 김창영씨의 한마디 한마디는 어린이를 대하는 마음가짐부터 태도까지 조목조목 지도의 중요한 자질이 됐다.

대불어대구지구는 지난달부터 매월 둘째 일요일마다 대구 보현사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어린이 지도에 필요한 다양한 강좌교육을 병행하면서 지도방안을 논의하고 정 보를 교류하며 지역 어린이포교에 희망을 주고 있다.

지난달에는 아트폰선 만들기를 배웠고, 어린이여름학교교과가 이어지는 8월은 쉬었다가 9월에는 전래놀이, 10월과 11월에는 두 달 과정으로 구연동화를 배울 계획이다.

대구지역 어린이지도교사들은 대불어대구지구의 이런 변화와 노력에 감사하며 적극 동참하고 있다. 전문가를 초빙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어린이법회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기 때문이다.

금융사 어린이법회 법사 다정 스님은 "대불어대구지구 정기모임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만족해했고, 영남불교대학 경산법당 오미자 선생님은 "모임을 통해 어린이지도 교사들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조직력까지 살아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불어대구지구장 선용 스님은 "매월 한 두 시간의 정기모임이 미약한 듯 보이지만 꾸준히 이어가다보면 어린이지도교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어린이포교활동에 기대와 의욕을 보였다.

배지선 기자

경주 장애인종합체육관 착공

경주지역 장애인들의 스포츠 여가문화를 위한 장애인종합체육관이 건립된다.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종광)은 불국사 회차 성터, 주지 종상 스님과 장애인단체장, 복지관 이용자 등 200여 명이 이 참가한 가운데 7월 13일 장애인종합체육관 건립 착공식을 가졌다(사진).

장애인종합체육관은 황성동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옆 1천여 평의 시부지에 20

동화사·대구사원주지연 모임 갖고 상호협력 다짐

대구 동화사 주지 허은 스님과 중무 소임자 스님들은 7월 10일 대구불교회관에서 사원주지연합회장 법혜 스님과 임혜스님들과 상견례를 갖고 대구불교발전을 위한 화합을 다졌다.

대구 지역불교의 양대 축으로 활동해오던 동화사와 대구사원주지연합회 임원 스님들은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 만남을 갖고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허은 스님은 대구사원주지연합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역 불교와 종단이 내실있게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고, 법혜 스님은 조계종 교구본사인 동화사의 뜻을 존중하면서 회원사찰의 권익보호와 포교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불교계의 취약분야로 지적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에 힘을 모으자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배지선 기자**

은석사, 어린이한문학당

대구 은석사 부설 틈비나유치원(원장 도순희)은 여름방학을 맞아 7세 유치부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한문학당을 개설한다.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한문학당은 지행 스님이 지도하며 유치부는 사자성어와, 부모님 한자 이름 쓰기 등을 배우고, 초등부는 백유경을 교재로 기초한자를 익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찬불가와 부처님 이야기, 재밌는 레크리에이션과 반별활동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다. (053)621-1003 **배지선 기자**

은해서서 지방선거출마자 모임

영천지역 지방선거 당선자와 출마자들이 7월 14일 은해서에서 모여 화합을 다지는 행사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영천 은해서(주지 법타)는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는 성숙한 자리로 영천시 지도자들이 모두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은해서 주지 법타 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과 손이목 영천 시장과 제4대 경북도의원, 영천시의원 뿐 아니라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지역 지도자들과 은해서 신도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배지선 기자



여역 원의 예산으로 4백여 평 규모로 들어 서게 된다. **배지선 기자**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새

김용태

대구능인중학교 교장



조계종립 대구 능인중학교 김용태(59) 교장은 불교종립학교 지도자로서 청소년 포교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

"청소년포교를 위해서는 먼저 교육 지도자부터 포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불자 교장·교감 모임인 '불교교육지도자모임'을 결성했다.

을 초부터는 대구파라미터청소년 협회 회장으로 청소년포교활동의 일선에도 나서고 있다. 또 조계종립 학교장 모임인 불교교육연합회 부회장이 되고 있다.

김용태 교장은 이런 노력을 청소년 포교에 당장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들어 대구에서 다섯 학교가 파라미터를 새로 구성했고, 5~6 학교가 파라미터 결성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에서 파라미터를

만들었다. 뭐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수 없었던 김 교장은 당시 능인중학교에서 활동하던 태일 스님을 불렀고, 태일은 몇 시간씩 이어진 토론에서 김 교장을 한번도 태일 스님을 이기지 못했고, 확고한 믿음과 신심을 갖게 됐다.

"당시 태일 스님은 불교가 얼마나 과학적인지를 밝혀 주셨어요. 어떻게 물어도 스님의 대답은 마틴이 없었어요. 결국 인과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밝혀놓은 것이 불교니 당연한 일이겠지요."

김용태 교장은 이렇게 독실한 불자가 되어갔다. 85년 학생부장을 맡으면서 상담심리를 공부하게 됐고 지금까지 전문상담교사로 학교폭력지도원, 학교폭력강연위원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김 교장에 스님들

'불교교육지도자모임' 결성 포교에 앞장

청소년 상담심리프로그램 개발이 꿈

운영하는 학교가 총 20여 곳에 불과한 것을 감안한다면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소극적이며 드러내지 않고 개인 신행을 하던 불자 교육지도자들이 불교교육지도자모임을 통해 불자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어 무엇보다 큰 보람이 되고 있다.

"불교는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종교로, 한 인간을 제대로 키워내고자 하는 교육자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교야말로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종교라고 확신합니다."

김용태 교장의 청소년포교활동은 이처럼 불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김 교장이 발심하고 신심을 기우게 된 것은 1979년 능인중학교로 부임해 오면서부터다. 조계종립학교라더니 불교연수도 다녀오고, 스님을 만날 기회도 많았다.

김 교장은 특히 80년대 초 다녀온 월성사 연수를 잊을 수 없다. 당시 탄허 스님이 법문을 하고 제를 주었는데, 4시간 동안 이어진 율회에 대한 법문은 김 교장에겐 무수한 의문을

의 관심과 가르침은 각별했다. 때로는 격려도 있었고, 알팍한 지식으로 이는 척척하는 안 된다는 경책도 있었다. 덕분에 김 교장은 학생 하나를 지도하는 데도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내딛는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아온 김 교장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늘 꿈을 이야기하고, 일선교사들에게는 백지와 같은 청소년들의 가슴에 아름다움과 희망을 그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매일 출근하면 법당 반야전부터 들러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리고 반야경을 봉송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김용태 교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은 복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그래서 더욱 청소년포교와 학생 생활지도에 심혈을 기울인다.

故 계명대 이영덕 교수에게서 전문상담심리를 전공한 뒤 불성을 이용한 청소년상담심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꿈인 김용태 교장은 "이런 작은 노력들이 청소년포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한다. **배지선 기자**

아직도 신문광고에만 매달리십니까? 불교도 인터넷 시대! 광고도 인터넷 시대!

http://ad.buddhapia.com

주소창에 "애드부다피아"만 치세요.

불교 최초 실시간 온라인 광고 사이트 애드부다피아!!

인터넷 세상, 이제 불교계도 모든 광고와 정보를 인터넷으로 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급하게 전해야 하는 사찰관련 홍보나 행사, 법회안내, 그리고 급하게 구하는 구인구직자리...등 아직도 신문이 나오는 날짜만 기다리며 광고를 하십니까? 이제 애드부다피어를 통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광고의 본질적인 효과를 누리보시기 바랍니다.

애드부다피아는 주요 검색포털사이트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모회사인 국내 최고의 불교신문인 현대불교신문사와 불교포털사이트인 부다피아와 부다뉴스와 연계하여 전략적인 마케팅 공략을 함으로써 귀사의 소중한 광고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홍보하여 드립니다.

지금 바로 애드부다피어로 접속하세요!!

[광고접수문의] http://ad.buddhapia.com / admaster@buddhapia.com 전화 : 02)2004-8213~7, 02)732-1522(직) / 팩스 : 02)737-0696